

# 순창을 선진 여성친화도시로

### 군, 관련 인프라 확충·소프트웨어사업 20개 추진... 2018년까지 59억 투자

순창군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국 제일의 선진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당초 5개 분야 60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던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선진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0개 사업을 선택해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20개 사업과 관련해 2018년까지 59억여원을 투자한다. 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3년 차에 접어들면서 18개 완료된 사업들을 제외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여성들이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군이 이번에 선택 집중하기로 한 20개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다. 특히 여성친화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였다. 군은 수유실 등을 갖춘 여성친화형 화장실, 여성친화 문화누리 마

을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주차장 설치 시 여성 우선 주차구역 20%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여성 보호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설치는 물론 CCTV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여성의 안정감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40%까지 확대 운영한다. 여성사회교육을 위해 250명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한식조리사 교육 등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또 실제 지역 여성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문 조사도 실시한다. 군은 15일까지 관내 여성단

체 회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에게 필요한 친화사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은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의 성과와 미흡한 점들을 분석해 사업들이 유기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2014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대중이용시설에 여성친화공간 조성, 우수 여성인력관리 시스템 DB구축, 보육시설 확충 국가예산확보, 양성평등기본조례 제정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 임실군, 귀농·귀촌 활성화 민·관 워크숍

임실군과 귀농귀촌협의회는 지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민·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지난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박 2일간 부안 NH변산수련원에서 12개 읍·면 1~2년차 새내기 귀농·귀촌인들과 각 읍·면 귀농귀촌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주제로 세부과제별 본인토의

를 진행하며 귀농귀촌인과 담당공무원이 한 조를 이뤄 각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뜻 깊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강사를 초청해 '전북도 귀농귀촌 정책 지원방향' 및 '우수 지자체 사례'에 대한 강연을 생동감 있게 듣는 시간이 되었다.

군 관계자는 "정착과정 중 1~2년차 새내기 귀농·귀촌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제일 크다"며,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따뜻한 관심과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청에서 열린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

## 동부권 단체장·의장 균형발전 한 목소리

### 6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총회 남원 개최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31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의 동부권 6개 시·군 시장·군수 뿐만 아니라 의회 의장도 모두 참석하여 동부권 지역의 현안사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 서로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부권 균형발전은 수년 전부터 언급되고 있고 당위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동부권 6개 시군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동부권 6개 시·군의 상생 발전방안과 동부권 국책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동부권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방향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분야 확대, 동부권 농업소득분야 보조금 도비지원을 상향 등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 동부권 6개

시·군 의회에서도 힘을 합치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은 중앙기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 것에 모두 동의하고, 발전계획 수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에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이환주 남원시장은 "동부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협력하고 단합해 반드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발전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소외이웃 돕기 주민 힘으로'

### 고창군 제2기 희망 나누리 발대식... 부안면·심원면 참여

고창군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단단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군과 복지관은 지난 31일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부안면, 심원면 주민 복지위원과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민관협력활성화사업 제2기 희망 나누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해 제 1기 희망 나누리 사업에 참여한 아산면과 대신면에 이어 올해는 부안면과 심원면이 추가로 참여하게 됐다.

'희망 나누리'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도우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민관협력활성화사업 경과보고, 2015년 희망 나누리위원회 활동소감, 협약식 등이 진행됐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대

원스님은 "모든 곳이 피어야 진정한 봄이 오듯이 주민 한분 한분이 꽃이 되어 행복한 지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해 보다 세심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과 관, 주민이 힘을 모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복지 요구를 해결하는 군민 행복 고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민관협력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주관하는 '2016년 민관협력활성화사업'에 선정돼 8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대상 발굴과 해소를 위한 시책관리, 주민조직 및 역량 강화, 모금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 남원시, 춘향제 대비 차선도색

남원시는 제86회 춘향제를 대비하여 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동절기 퇴색·노후 차선과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한 차선도색을 4월 한달 간 실시한다.

시는 춘향제가 펼쳐지는 광한루 주변 도로와 도봉동 등 시내 주요도로 차선도색을 1억여원을 들여 의총로의 7개 노선 8.15km 구간을 새롭게 도색한다.

특히, 퇴색한 차선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등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 고취도(선명도) 도색을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실군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분만편련출혈(임원일로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중증임신중독증(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으로 진단받은 산모를 대상으로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고,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분만한 여성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담당팀(☎40-3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

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다자녀 전기료 감감 등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을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지난 31일부터 본격 실시됐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출생아기의 주민등록 예정지에 출생신고 하러 읍·면사무소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요금 감면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양육비)의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신청결과는 서비스별로 처리부서에서 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한다.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출생신고 이후 방문한 경우에도 개별신청은 가능하다. /순창=구인규 기자

## 남원경찰, 탈북민 정착지원 간담회

남원경찰서는 지난 30일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보안협력위원장 이·취임식 및 탈북민 정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임 위원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신임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 지난해 경찰활동과 탈북민 정착지원 사례 소개, 지역사회 안전과 탈북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296개 도로·시설물 정비

임실군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봄을 맞아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정비를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각종 장비와 도로관리원을 비롯한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 동원해 군도·농어촌도로 등 총 296개 노선 631km를 정비한다.

특히, 읍치제, 모래제, 불제, 선제 등 주요 고갯길과 급커브 길에 지난 겨울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살포된 제설용 모래를 집중 제거하여 빙판길에 사용된 모래가 또다른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낡고 변색된 도로표지판과 차선은 도색 및 보수를 실시하고, 가드레일과 방호벽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과 대형 차량의 통행이나 자연 현상으로 파손된 도로를 일제 정비하는 한편, 길도랑 준설 및 배수불량지구를 정비하고 낙석 및 산사태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임실=진홍영 기자